

코로나19 시대 니버의 상징론에 대한 소고: 상징과 기독교 윤리

유경동

목 차


- I. 서론
- II. 상징
- III. 상징의 정치적 특성
- IV. 상징의 종교적 특성
- V. 상징의 역사적 특성
- VI. 라인홀드 니버의 상징론의 의의
- VII. 결론



유경동 박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B.Th.), 연세대학교(B.A.), 미국 에모리대학교(M.Th.)를 졸업하였고, 밴더빌트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논문 초록 ■

코로나19(Covid-19) 시대에 기독교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직면하여 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적인 종교 형식이 방역의 문제로 전면적인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본다. 기독교가 공적영역에서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의 사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은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종교적 상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다. 성전은 단지 크리스천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종교적 가치와 형식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여 나가는 영적 공동체의 상징적 특성을 가진다.

필자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세계관에 주목하며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에서 '상징(symbol)'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니버는 기독교 신정통주의의 전통에 서서 성경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의미(ultimate meaning)'의 영역을 '신화'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제공하는 수단을 '상징'으로 파악하였다. 필자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니버의 '상징'에 대한 해석인데, 살펴보겠지만 그는 '상징'을 종교의 사적 영역에서 종교적 기호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니버는 상징 개념을 공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공공영역에서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니버는 상징의 해석을 통하여 '상징의 정치성과 종교성, 그리고 역사성'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고 필자는 이해하며, 이러한 니버의 공헌은 코로나19 시대 교회와 신학이 신앙의 본질로 '재정향(reorientation)'하기 위한 신학적 통찰력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라인홀드 니버, 상징, 하나님의 나라, 정치, 역사

I. 서론

코로나19 시대에 ‘뉴노멀(New Normal)’에 대한 도전이 기독교계에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집합의 제한’을 요구하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여겨진다. 교회는 단지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로서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예배를 위시하며 말씀, 교육, 친교,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와 전도를 위한 영적 공간이다. 따라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제한되면 자연이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종교적 형식과 신앙의 가치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질병과 이를 방어하는 과학은 종교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마스크 쓰기, 추적과 격리, 그리고 치료를 통하지 않고는 펜데믹(Pandemic)의 확산을 막을 수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거리 두기’ 협조가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필자는 코로나19에 직면한 기독교의 여러 과제 중 하나는 과학과 이성의 세속사회에서 ‘기독교 상징’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기독교의 상징’은 인간의 합리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하고 신비의 세계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필자는 이해하며,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십자가’의 표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궁극적 의미를 드러내어, 모든 인류에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기독교의 전통 속에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상징은 개인과 공동체를 일치와

조화로 이끄는 영적 노끈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모임의 제한은 자연히 건물 또는 영적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다양한 종교적 가치의 상징 실현이 제한되어 '기독교 상징의 위기'를 초래하여 종교적 의미 또한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징성의 약화는 교회 내적인 다양한 종교적 가치의 축소와 아울러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문제로 발전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상황에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상징'의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니버는 기독교 신정통주의의 전통에 서서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의미의 영역을 '신화'로 정의하였으며, 그 의미를 제공하는 수단을 '상징'으로 파악하였다. 필자가 관심이 있는 영역은 니버의 '상징'에 대한 해석인데, 살펴보겠지만 그는 '상징'을 종교의 사적 영역에서 종교적 기호로 제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공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공공 영역에서 윤리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따라서 니버의 상징 개념에 관한 연구는 자칫 코로나19 시대에 위축되기 쉬운 기독교의 영적 가치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시 주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니버에 대한 국내 학계에서의 논문은 주로 정치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소개되었으¹⁾ 상징과 같은 주제에 대한 논문은 없었다. 이 논문의 한계는 지면의 한계상 니버가 중시한 '신화'에 대한 개념을 '상징'과 비교하여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다만 논지를 전개하면서 '신화'에 대한

1) 학술 저널 검색 사이트 "DBpia"를 통하여 니버 연구와 관련된 주제 50여 편을 살펴 보면 '정치윤리'와 '사회윤리', '정치 권력', '민주주의', '시민사회', '정의론', '공산주의', '교회와 국가' 등의 소주제들이 검색된다.

http://www.dbpia.co.kr.proxy.mtu.ac.kr:8080/search/topSearch?startCount=0&collection=ALL&range=A&searchField=ALL&sort=RANK&query=%EB%9D%BCEC%9D%B8%ED%99%80%EB%93%9C&srchOption=*&includeAr=false#none [2020. 9. 6 접속].

니버의 개념을 간략하며 니버의 상징론을 살피도록 하겠다. 필자가 니버의 상징 개념을 정리하면서 유형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상징의 ‘정치성’, ‘종교성’, 그리고 ‘역사성’에 관한 것이다. 이제 니버의 상징에 대한 정의를 개관하고, 이어서 니버의 상징론을 유형화하여 차례대로 살피도록 하겠다.

II. 상징

라인홀드 니버의 상징 개념은 그의 주요 저작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며 초기 저작인 『기독교 윤리학의 이해』(*The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935)에서는 ‘신화(myth)’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궁극적 실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이며 ‘상징’은 ‘신화’를 설명하는 보충 개념으로 사용하다가 『자아와 역사의 드라마』(*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955)에서는 ‘상징’을 ‘신화’와 같은 개념적 수준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²⁾

2) 볼트만의 독일어판 『신약성서와 신화』(*Neues Testament und Mythologie*, 1941)가 출판된 이후 “*Kerygma and Myth* (1948)”가 영어로 출판되고, 니버의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955)”에서 ‘상징’의 개념에 변화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는 볼트만의 영향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볼트만의 저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URL=https://ko.wikipedia.org/wiki/루돌프_볼트만(2020년 9월 6일 최종 접속). 참고로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니버의 1차 자료는 아래의 pdf file을 통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히며 이 책들 외에 다른 원전은 별도로 출처를 밝힌다.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3);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Discerning*

이와 같은 ‘신화’와 ‘상징’ 개념의 변화는 본회퍼의 ‘비 신화론’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보며, 자칫 신화의 개념이 전-과학적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니버는 그의 초기 저서에서의 ‘상징’ 개념을 점차 ‘신화’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³⁾

니버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종교적 신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데, 중요한 점은 ‘신화’는 ‘상징’이나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⁴⁾ 상징은 세상에서 궁극적인 것을 염원하는 일종의 정신적 표상의 도구로서 “인간의 세상은 세상의 혼돈 속에서 궁극적인 조화의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니버는 정의한다.⁵⁾ 니버는 상징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초상화의 경우 순간 순간 변하는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하여서는 눈으로 보이는 너머에 있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URL=<https://archive.org/search.php?query=Reinhold%20Niebuhr> [2020. 9. 6 접속].

3) 볼트만이 ‘전-과학적인 신화의 요소’를 성경에서 분리하려던 ‘비 신화론’의 시도에 대하여 니버는 ‘원시적인 신화’와 ‘영구적인 신화’를 구별하여 ‘영구적인 신화’는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참고)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75. 참고로 니버의 원전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pdf file로 연구하였으며 페이지는 ‘plain text’이므로 파일의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C%20Reinhold%20-%20The%20Self%20and%20the%20Dramas%20of%20History.pdf> [2020. 9. 6 접속].

4)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6. PDF by ANGEL (realnost-2005@yandex.ru),

URL=[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https://spiritual-minds.com/religion/philosophy/Niebuhr,%20Reinhold%20-%20Interpretation%20Of%20Christian%20Ethics%20(Philosophy,%20Theology)%20(Christian%20Library).pdf) [2020. 9. 6 접속]. 참고로 인용 페이지는 ‘plain text’의 pdf file 순서를 따랐음을 밝힌다.

5)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1.

는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러한 표현이 ‘상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⁶⁾ 니버는 다른 예로 인간의 의복은 피부를 덮어주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옷으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의 예술적인 기호가 무엇인지를 암시하며,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는데 이때 옷은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며,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집도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거처를 넘어 “권세와 직업 그리고 명예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니버는 또한 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는 이유를 예를 들면서, 인간이 의사소통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며, 언어가 그러한 표현을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언어는 “정신의 보화가 태어나는 땅의 그릇”과 같은 상징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다.⁸⁾

종교성을 나타내는 신비주의에 있어서 내면세계의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인 초월에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경우, 자의식과 절대자의 조화는 상징이 된다고 설명될 수 있으며, 상징은 의식적 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⁹⁾ 따라서 상징은 종교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종교의 신화는 그 초월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상징이 필요하며, 신화는 역사적 조건들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일 신화를 객관적 지식으로 여기는 과학적 합리성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그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¹⁰⁾

따라서 니버는 기독교 종교에 있어 신화는 궁극적 의미를 지향하고, 상

6)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6.

7)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47.

8)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42.

9)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7. 신비적 명상으로 신과의 합일이 상징이 된다고 니버는 해석하며 이론적 배경으로 신플라톤주의를 예로 들고 있다. 같은 책, 27.

1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

징은 그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신화적 종교의 특징은 상징을 사용하면서 “실제 [세상]에서 초월자의 상징을 발견”하는 것으로 초월자와 세상을 이원론처럼 분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영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범신론을 피한다고 강조한다.¹¹⁾ 니버는 상징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 세상적(this-worldly)’이고 다른 하나는 ‘저 세상적(other-worldly)’으로, 특히 히브리서의 11장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통한 희망을 드러내며 그 희망은 역사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¹²⁾

인간의 이성 또한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니버는 무엇보다도 이성은 “자연 위에서 그리고 자연에 참여하는 인간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주장한다.¹³⁾ 니버에 따르면 물리학도 자체적으로 시나 종교처럼 측정이나 관측과 같은 기제를 통하여 상징을 사용한다고 해석한다.¹⁴⁾ 니버는 역사에 대한 해석에도 상징을 사용하는데 각 각의 공동체의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상징을 통하여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회개의 경험 이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¹⁵⁾ 특히 기독교 신앙 체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역사를 성취하는 가능성이자 유한성과 가능성의 역설에 처하여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자비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니버는 강조한다.¹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니버는 상징을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정신

11) 위의 책, 32.

12)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74-75.

13)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3), 14.

14)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75.

15) 위의 책, 75-76.

16) 위의 책, 115.

적 기제로 파악하며 그 영역은 일상생활부터 종교적 영역, 그리고 학문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특히 상징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계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설명하여 주는 가치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니버는 이와 같은 상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근거로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데 특히 상징의 '정치성'과 '종교성', 그리고 '역사성'은 니버의 상징론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보며 다음에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III. 상징의 정치적 특성

니버는 상징을 주로 정치와 종교를 해석하는 논리에 많이 사용한다. 정치는 유토피아를 그리고 종교는 궁극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지향하기 때문에 신학자인 니버의 저서에서 상징 개념이 정치와 종교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그만큼 상징이 가진 특성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정치적 세계에서 인간과 집단이 희구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정적인 국가체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필자는 니버가 이해하는 '상징의 정치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개념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은 권력, 자유, 그리고 평등과 같은 정치적 개념과 연관하여 설명할 때 사용이 되며, 이때 그 성격은 상대적이고 임시적이라고 니버는 파악한다. 상징은 정치에서 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방편으로 사용되는데, '자기중심'이란 자유나 평등의 이념이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본다.¹⁷⁾ 예를 들어 '평등'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상징이 될 수 있지만, 휴전협정과 같은 조치가 취하여질 때, 평등과 같은 상징의 의미

1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41.

는 정치적 체제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가감될 수 있는 것이다.¹⁸⁾

니버는 권력 개념은 세습제나 봉건제 그리고 현대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치체제를 대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시대마다 나름 정당성을 가지고 설명이 된다고 파악한다.¹⁹⁾ 왕조와 같은 체제가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적인 위상, 종교적인 후광, 그리고 도덕적 위엄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특히 왕조체제의 정당성을 위한 상징체제는 중요하다.²⁰⁾ 군주제와 같은 권력체제에서는 한 사람이 권력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으며, 왕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²¹⁾ 니버의 분석으로는 군주제는 의회제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수행하는데 유연하며, 나름 “국가의 지속적인 의지와 연합의 상징”을 내세우는 권력의 특징을 가진다고 니버는 설명한다.²²⁾ 니버는 군주제에 자체의 정당성을 유지하였던 시대 나름대로 유기적인 상징이 현대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의 출발 자체가 그 이전 정부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하는 경우에 더욱더 그러하다고 지적한다.²³⁾

18)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235.

19)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22.

20) 위의 책, 125.

21)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54.

22)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47. 참고로 니버의 원전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인용 페이지는 pdf file의 표기를 따랐음을 밝힌다. religion-online.org, URL=<http://media.sabda.org/alkitab-2/Religion-Online.org%20Books/Niebuhr,%20Reinhold%20-%20The%20Irony%20of%20American%20History.pdf> [2020. 9. 6 접속].

23)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29. 니버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글을 인용하여 “사회는 우리 덕의 열매이지만 정부는 우리의 사악함의 산물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정치에 대한 해석에도 시대에 따라서 권력에 대한 상징은 상대적이라고 강조한다.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58.

니버는 국제정치에서도 ‘군사적 힘’이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메시아주의가 등장할 수 있으며 자국의 안보의 불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나 민족주의와 같은 상징이 등장한다고 본다.²⁴⁾ 니버는 미·소 양국이 서로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순수함과 정의의 상징”이라고 착각한다고 비판한다.²⁵⁾ 니버는 종종 국가 권력의 도덕적인 수준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는데, 왜냐하면 핵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군사 권력을 사용하는 초기부터 그 행위와 책임에 대한 수준이 도덕적 모호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²⁶⁾ 원자폭탄은 “우리의 세계 권위가 놓여있는 기술적인 효용성의 상징”이라고 니버는 보면서 이런 치명적인 무기 사용 자체가 국가 사회에서의 도덕적 수준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²⁷⁾

니버는 국제정치에서 ‘정의’도 일종의 상징성을 띠지만 그 정의의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승전 같은 경우, 미국이 주장하는 ‘정의의 상징’이라는 것은 “국가적[차원의] 자기 이익과 국가적인 자만”이 아닌가 반문하며, 미국이 신장하는 민주주의란 상징도 “부자 국가만이 가능한 경제적 자유의 부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상징은 상대적인 정치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²⁸⁾ 이러한 상징의 상대성은 당

2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8.

25)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23.

26) 위의 책, 26.

27) 위의 책, 46.

28) Reinhold Niebuhr,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ed. by D. B. Robertson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57), 163. 참고로 니버의 원전은 다음의 eBook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http://eds.b.ebscohost.com.ssl.proxy.mtu.ac.kr:8080/eds/ebookviewer/ebook/bmx1YmtfXzQxMzYzX19BTg2?sid=65bd969b-5d36-456d-b3a9-4eaca4743cd5@pdccv-sessmgr03&vid=1&format=EB&rid=8> [2020. 9. 6 접속].

시 한국전쟁에 대한 설명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미국 민주당의 경우 한국 전 참여에 대하여 “책임의 상징이자 도구”로서 적극적이었던 반면, 공화당의 경우는 당론이 분열되는 양상까지 보여주었다고 니버는 지적하면서 정치에 있어서 상징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니버는 상징의 상대적 특징을 설명한다.²⁹⁾

둘째, 니버는 상징의 정치적 개념을 인물이나 체제 그리고 문화를 설명할 때에 사용한다. 니버는 정치적 인물에 대하여 상징을 사용하는데, 윌슨(Wilson) 대통령이 “전쟁이 없는 세계와 국제연합의 비전”을 베르사유 조약(the Treaty of Versailles)을 통하여 기대하였던 경우, 이는 ‘이상주의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⁰⁾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이념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마치 영국의 대장정(Magna Carta)과 같은 의미 지평에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³¹⁾ 미국 남북전쟁에서 링컨의 ‘유니언(Union)’을 통한 노예 해방전쟁의 경우 “정부의 전략에 있어 명령이 정의에 앞선다.”라는 관점에서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니버의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³²⁾

니버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수와 다수의 선택이라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 지배적이라고 보는데, 이때 “다수의 숫자가 사회적 힘의 상징”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³³⁾ 그러나 니버는 이러한 정치체제에 기반한 미국의 평화가 국가적 위선이나 자기의의에 빠져 ‘선의

29) 위의 책, 64-65.

3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9.

31)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23.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46. 중세기에는 말을 탄 기사가 군사적인 무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현대에서는 은행의 주식을 다루는 투자자들도 물질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니버는 이해한다.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13.

32)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123.

33)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4.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하려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며, 특히 미국의 부유는 국제 분쟁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을 환기한다.³⁴⁾ 아울러 공산주의 체제의 상징도 국가 개념으로부터 후퇴한 유토피아이며, 국가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구성체가 아니라 단지 억압의 도구로 공산주의는 전략하였다고 니버는 비판한다.³⁵⁾

니버는 정치적 상징의 특성으로 미국은 부르주아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정의한다.³⁶⁾ 니버는 부르주아 문화를 대변하는 당시 미국의 문화가 추구하는 부와 행복의 개념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며 시편 2편과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라는 말씀은 이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비웃음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웃음은 심판과 인간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도 연관이 된다고 설명한다.³⁷⁾ 니버는 당시 미국을 위시한 문화의 이러한 모호한 상징성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유한한데도 무한한 성공을 추구하며 그리고 인간들의 집단 또한 그러한 유한성을 모르고 마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문명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것이 당시 문명의 상징이라고 지적한다.³⁸⁾ 이와 같은 문화와 문명의 상징은 기술주의 문명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기술이 자연을 정복하여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는 식의 관점은 인간이 역사도 자신들이 조정하여 나갈 수 있다고 오만하게 하는데, 이러한 것이 현대 인간을 “영적 혼란의 상징”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³⁹⁾ 니

34)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40-41.

35) 위의 책, 145.

36)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8.

37) 위의 책, 40.

38) 위의 책, 81.

39) 위의 책, 84. 니버는 여기서 “영적 혼란”의 개념을 종교적 의미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서로 적의를 가지고 발생하는 열강 사이의 “예방 전쟁”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버는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유한한 인간의 욕망이 현대 문명의 끝 모를 마천루를 향한 건축과 다름과 없다고 빗대어 현대 문명을 비판한다.⁴⁰⁾

셋째, 니버는 위와 같은 상징의 상대적인 정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연합의 상징’에 대하여 강조한다. 국가의 정치체계 내에서 안정의 상징, 즉 자유와 정의, 질서, 민주주의, 그리고 과거 역사의 유산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체제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안정이라는 개념이 “다수의 의지에 반대하는 전통적인 특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니버는 힘주어 강조한다.⁴¹⁾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하여서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연합의 상징”이 있어야 하는데 비록 공동체 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다수의 의견이 개진되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소수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위엄의 상징(royal Symbol)”이 필요하다고 니버는 강조한다.⁴²⁾ 이런 맥락에서 니버는 비폭력의 경우 비폭력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기호이자 상징의 역할을 하는 무중요(nonhatred)”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인 갈등이 불가피하겠지만 기독교는 사회 정치학에서 용서의 문제에 더 깊은 인식론적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³⁾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사상에서 상징의 정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정치적 권력과 연관된 다양한 이념의 상대적 특성을 살피고 체제와 문화의 상징적 요소들에 대한 니버의 관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니버가 중시한 상징체계의 유기적 특성인 ‘연합의 상징’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니버가 파악한 상징의 종교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40) 위의 책, 91.

41)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29.

42) 위의 책, 130-131.

43) Reinhold Niebuhr,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258.

IV. 상징의 종교적 특성

니버의 신학에서 상징의 종교적 특성은 ‘궁극적 의미’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상징의 종교적 특징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종교적 상징의 필요성’, ‘삼위 일체의 상징성’,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 그리고 ‘자아의 변화에 관한 상징성’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에게 종교적 상징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 니버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탈무드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적인 상황을 연결하는 일종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⁴⁴⁾ 다윗 시대의 법궤도 일종의 당시의 유대 문화적 종교와 관련하여 상징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며]” 동시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절대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⁴⁵⁾ 그러나 니버는 상징은 히브리 종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 ‘우상’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데 한 때 신성의 의미로 충만하였지만, 그 의미를 잃으면 부도덕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⁴⁶⁾ 구약의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과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제사장은 법궤를 신앙의 요소로 삼지만, 예언자들은 법궤를 마귀와 같이 여겼는데, 전자는 성전의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여 법궤를 섬기도록 유도하여 우상화하였다고 예언자들은 지적한다.⁴⁷⁾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의 왕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것으로 상징화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44)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40.

45)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52.

46)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5.

47)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64.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상징의 이중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⁴⁸⁾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의 설교는 “사회조직과 그 통치자들의 필요와 편견, 그리고 욕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니버는 비판한다.⁴⁹⁾

둘째, 상징의 종교성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에 ‘사랑’과 ‘십자가’와 같은 개념에 니버는 깊은 관심을 보인다. 니버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를 대변하는 것으로 ‘사랑’이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해한다.⁵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상징은 원수마저 용서하시는 ‘초-도덕적 특성’을 띤다.⁵¹⁾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연관이 되어있으며” “영원을 파악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서 “거룩의 기준”이 되며 “신성과 인간성의 상징”으로 파악이 된다고 니버는 설명한다.⁵²⁾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실재하였고 부활하여 역사를 초월하였기에 역사 내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궁극적인 상징이 될 수 있다.⁵³⁾ 니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

48) 위의 책, 78.

49) 위의 책, 83-84. 니버의 이와 같은 해석은 미가의 경우처럼 ‘예언자적인 소명’에 대하여 강조한다.

50)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5. 니버는 계시론을 다루면서 Herder가 계시를 문화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한 것과 Ritschl이 역사를 점진적인 계시의 영역으로 본 점, Lessing이 계시를 이성의 점진적인 발전의 맥락에서 파악한 점, Hegel이 그리스도를 역사의 종교적 상징으로 이해한 점, 그리고 Wellhausen이 계시를 “인간의 발전적인 종교적 자각”으로 추론하는 등의 관점들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내용은 결국 그리스도를 “종교와 인간 삶의 성장하는 영성화에 대한 기대나 상징, 또는 그 정점” 정도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31.

51) 위의 책, 16.

52)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116.

53)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45.

간의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사회적이며 역사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데도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로서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⁵⁴⁾ 특히 ‘십자가’는 사랑을 표현하는 상징이지만 세상은 십자가의 이러한 상징성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데, 니버는 이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완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개입에 의하여서만 성취된다고 주장한다.⁵⁵⁾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하심을 상징하는 고난 겪으신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비롭게 나타낸다.⁵⁶⁾ 따라서 십자가는 최고의 상징이라고 니버는 설명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전적인 사랑과 용서를 의미하며 인간의 유한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고 주장한다.⁵⁷⁾ 십자가는 상징으로써 윤리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며, 만일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독교의 윤리적 의의가 없으면, 인간을 윤리적 주체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러한 규범과 관계가 없는 신비주의로 퇴보할 수 있다고 니버는 지적한다.⁵⁸⁾

셋째, 니버의 종교적 상징 개념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역사를 통전적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개념과 연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

54)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97. 니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어린아이의 순진무구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어거스틴은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타락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니버는 지적한다.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72-73.

55)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82.

56)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134.

57)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69.

58)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72-73.

는데 이는 인간의 유한하고 모호한 역사에 대한 심판이며 인간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니버는 강조한다.⁵⁹⁾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상징은 니버에 따르면 문자적으로나 또는 의미 없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성서의 상징은 “시간과 영원”의 변증법적인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⁰⁾ 니버가 강조하는 시간과 영원의 변증법이란 인간은 유한하여 영원을 파악할 수 없어서 성서적 상징이 필요한 것이며 만일 스스로 영원을 파악한다고 착각하면 스스로 영원의 가능성을 인간이 상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⁶¹⁾ 역사와 연관된 상징의 개념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니버는 최후 심판의 상징이 전제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그것은 “역사의 심판자는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역사 내 선과 악의 구별”이 심판을 통하여 드러나며, 그리고 “역사의 끝”으로서의 심판이다.⁶²⁾ 니버는 육체의 부활과 연관

59)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237. 이와 같은 니버의 주장은 이성으로 영원을 파악하려고 한 플라톤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형성된다. 한편, 인간의 역사는 “궁극적인 성취의 가능성 아래 있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며 구속자가 되심을 니버는 강조하면서 인간의 역사를 염세적인 각도에서 보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낭만적으로도 접근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3-24.

60)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299. 니버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연주의적인 유토피아나 희랍의 이원론적인 내세 또는 신플라톤주의의 무의미한 세계관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신화로서 이때 재림을 통한 역사의 성취는 역사와 전적으로 구별된 세계의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역사의 종점을 의미하는데, 이때 성취는 역사와 연관하여 초월적이면서도 그리고 역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1-22.

61) 위의 책, 299. 니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를 역사의 발전개념과 연관시키는 그 어떤 시도도 배격한다.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3.

62) 위의 책, 301-303. 니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서 마지막 나타나는 신랑과의 예식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역사의 최종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설명한다.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95.

된 상징은 “영혼의 불멸”에 관한 것보다는 “그 함축적인 의미로서 더 개인적이며 보다 사회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인격적인 ‘누수(nous)’라는 개념보다는 실제적인 육체를 가진 ‘자아’라는 의미가 더 드러나는 맥락에서 부활이 중시되어야 하며, 또한 부활 개념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문화와 문명, 국가 등과 연관된 사회와 자연 그리고 역사를 전체적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⁶³⁾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역사 안에서 종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도 시간 안에 있는 도덕적 행위라는 점에 대한 강조는 역사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니버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하나님 심판의 윤리적인 상징 개념과 연관하여 니버는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존재나 역사가 불완전함을 드러내며, “미래가 현재보다 더 안전하거나 더욱 고상한 덕을 보장하는 주는 영역으로 절대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약성서에서 상징은 역사에 대한 전체적이고 일관적인 관점[을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한다.⁶⁵⁾ 니버는 ‘적그리스도(Anti-Christi)’도 역사의 끝에 나타나는 악의 상징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의 완성으로서 인간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의 끝이자 적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한다.⁶⁶⁾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에 대하여 니버는 디모데 후서 3장 2, 4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을 더 사랑하며 심지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까지 예언되는 사안들이 이러한 인간의 불복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⁶⁷⁾ 따라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뱀은 악의 상징

63) 위의 책, 322-323.

64)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260.

6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329.

66)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26.

67) 위의 책, 28.

이다.⁶⁸⁾ 신화에 등장하는 사탄은 신에게 대항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따라서 성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Yahweh)의 날은 역사 내 악의 권세의 상징인 용이나 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승리로 간주했다.”라고 니버는 강조한다.⁷⁰⁾

넷째, 니버의 종교적 상징 개념에서 중요한 점은 ‘자아의 변화’와 연관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공동체의 변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니버는 기독교의 상징은 부활과 재림을 역사와 분리하여 보지 않고, 특히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자아의 자유와 영혼, 그리고 육체가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몸을 중요한 상징으로 파악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사도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 앞에서 전적인 자아의 복종을 전제하는 상징이 된다고 언급한다.⁷¹⁾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완전한 사랑을 받는 은총에 거한다.⁷²⁾ 자기로부터 해방되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과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의 부활에 대하여 강조함으로써 니버는 상징의 의미를 변화된 자아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⁷³⁾ 니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기독교에도 “은총의 공동체에 대한 실재의 적절한 상징”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인종이나 국가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분열하고 있던 니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일치의 상징”을 위한 기독교 정신을

68)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28.

69) Reinhold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199.

70)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25. 니버는 이 해석에 있어서 특히 다음을 참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W. O. E. Oesterley, *The Evolution of the Messianic Idea*, Ch. 16.

71) 위의 책, 111-113, 117, 322-323.

72)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43-144.

73)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170.

강조하고 있다.⁷⁴⁾

그러나 상징으로서의 자아는 여전히 제한적인 존재로 설명된다. 니버는 인간에게 내재적인 초월성이 있다고 착각하여 스스로 한계를 잊어버리고 초월의 상징처럼 처신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한다.⁷⁵⁾ “자연적인 악(natural evil)의 가장 명백한 상징은 죽음”이라고 니버는 정의하면서 “도덕이나 역사적인 악”은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여 신이 되는 것처럼 자만하는 것이라고 니버는 설명한다.⁷⁶⁾ 니버는 인간이 과거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상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미래에 대한 무지”로서 인간의 연약함만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한다.⁷⁷⁾ 그리스도도 “인간의 가능성이 자 유한성의 진정한 신화적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갈릴리 출신의 ‘선한 사람’으로 대치하는 순간 인간의 유한성을 망각하고 인간도 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그 신화와 상징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니버는 파악하고 있다.⁷⁸⁾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니버에게는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Eckhardt)처럼 신적 가능성의 상징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하게 되면 인간도 같은 범주에 넣게 된다고 비판한다.⁷⁹⁾ 어거스틴의 경우 인간의 자기 초월의 가능성을 ‘기억’의 특성을 통하

74) Reinhold Niebuhr,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145.

75) Reinhold Niebuhr,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62. 참고로 니버는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분석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의 ‘타락’ 기사와 희랍신화의 ‘프로메테우스’에 관한 내용을 예로 들고 있다.

76)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120-121.

77)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108.

78)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7. 니버는 이러한 사조의 배경인 정통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같은 책, 7.

79)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65.

여 해석하였다는 점을 니버는 중시하였고, 특히 어거스틴이 자기-결정이나 초월을 자기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외부에서 찾았다는 점에 대하여 강조한다.⁸⁰⁾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상징 개념에서 십자가와 사랑을 중심으로 삼위일체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상징이 관념적인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성, 인간과 자연, 그리고 역사를 포함하는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상징' 개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상징을 '책임적인 자아'의 문제까지 연관시키는 점을 짚어 보았다. 니버의 또 다른 상징 개념의 중요한 점은 그의 '역사관'인데 이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V. 상징의 역사적 특성

니버는 역사의 완성이라는 시점을 인간이나 역사의 발전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역사를 상징의 개념으로 니버가 매우 중시한 것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니버식의 상징의 역사적인 개념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필자는 보는데 그것은 각각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 그리고 역사를 판단하는 '예언자의 상징성'인데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니버의 상징관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역사 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니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은 일종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의(righteousness)'에 의한 인간의 '의'의 가능성이 과연 '역사적 가능성'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니버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인간의 원의(original righteousness)'는 역사 내적인 것은 아니며, 역사 내 인간의 타

80) 위의 책, 166-167.

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가톨릭 신학의 ‘자연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이유는 역사 안에 죄를 지은 유한한 인간이 마치 스스로가 영원히 죄가 없다고 여기는 기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니버는 지적한다.⁸¹⁾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니버는 이러한 ‘의’에 관한 문제가 만일 역사 내에 가능하게 하려면, ‘원의’와 같은 본질적인 회복은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된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과 신뢰, 그리고 확신”에 의한 순종이 인간에게 가능하며, 또 인간의 영혼이 제 뜻과 전적으로 내적인 합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생과 생의 완전한 조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⁸²⁾ 이렇게 될 때 역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장소로서 ‘상징’이 되는 것이다.

둘째, 니버가 강조하는 역사의 상징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과 연관이 된다. 니버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듯이 성서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같은 약한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하게 받들고 수행하는 상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이야말로 “모든 역사적인 성취와 인생의 마지막 의미 사이의 잠재적인 모순의 상징”이라고 설명한다.⁸³⁾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모든 역사의 고난을 초월하는 완전한 의와 평화의 나라”를 의미한다.⁸⁴⁾ 니버의 상징의 역사성에서 중요한 점은 역사가 이원론적이지 않으며 “미래는 때가 되면 나타날 영원에 대한 예기치 않은 가능성의 상징”으로서 강조된다.⁸⁵⁾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너머에 있지만 “시간을 부정하는 영원

81) 위의 책, 296-298.

82) 위의 책, 306.

83) Reinhold Niebuhr,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92.

84) Reinhold Niebuhr,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143.

85)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306.

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로 역사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종국적으로 역사의 끝에 완성되는 시간 안에 있는 ‘상징’임을 강조한다.⁸⁶⁾

셋째, 니버는 역사의 상징 개념에서 항상 역사 자체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항상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니버는 역사 속에서 상징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상징을 중시하면서도 기독교의 ‘이상’과 ‘상대적’인 것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하여 항상 주의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며, 선교사 운동의 경우 금욕적 신앙을 너무 중시한다든지, 기독교 정통주의의 경우 의인 개념과 은총을 너무 강조한 점이라든지, 그리고 자유주의 기독교의 경우 신앙의 문제를 합리성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오히려 금욕주의와 같은 점을 과소평가한 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⁸⁷⁾ 따라서 니버는 기독교가 예언자적인 종교의 역할을 하려면 기독교가 염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신비주의적이거나 이성적 내세관 또는 자연주의적 유토피아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⁸⁸⁾ 예로서, 니버는 종교가 올바른 상징의 역할을 할 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만일 종교의 상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선교의 경우에도 제국의 타

86) Reinhold Niebuhr, *Beyond Tragedy*, 192.

87)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68.

88) 위의 책, 191. 니버는 성례전도 상징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것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에 평화를 주는 역할을 하며 아울러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니버는 여기서 성례전의 배경으로 독일에 폭탄을 투하할 수밖에 없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던 비행사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성례전에 참석하지 못한 예를 드는데, 이때 성례전의 상징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행하는 경우에도 부득이 참석하여야 하는 의식으로 니버는 이해하고 있다. Reinhold Niebuhr,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223.

락에 대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국의 세속적 영향에 물들게 되는데, 이는 예언자적인 종교에서 처음 하나님과의 신성 계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이나 국가의 세속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인 구원의 상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⁸⁹⁾

지금까지 필자는 니버의 신학에 있어서 ‘상징의 역사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특히 역사 내 ‘하나님의 의의 실재’,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 그리고 역사의 상징을 분별하는 ‘예언자 정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상징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역사와 단절하지 않고 역사의 시간 안에 있는 역사적 상징으로 이해한 점은 니버의 신학에서 중시하여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다음 장에서 결론으로 니버의 상징 개념을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VI. 라인홀드 니버의 상징론의 의의

필자는 서두에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종교적 상징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배와 같은 종교 형식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겪는 새로운 일상은 종교가 기호나 상징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종교성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크리스천 또한 신앙을 유지하는 영성의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니버의 상징론은 코로나19 시대에 앞으로 교회와 신학이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고 본다. 비록 니버의 신학이 현재 우리가 겪는 팬데믹(Pandemic)과 같

89) Reinhold Niebuhr, *Faith and History*, 25. 성찬주의처럼 신적인 초월성을 “상징이나 형상”으로 바꾸었을 때 예언적 종교의 의미가 상실하게 된다.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12. 상징은 때때로 세속적인 거짓-세계에 대한 환상을 심어 줄 수 있어서 심지어 인간을 우상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Reinhold Niebuhr,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34.

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나름으로 현재의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여 나아갈 미래의 교회와 선교에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니버의 상징 개념은 '신화'의 궁극적 의미를 보충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지만 그런데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니버의 공헌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 내용은 각각 '해석학적', '역사 신학적', 그리고 '윤리학적' 공헌이라고 필자는 이해하는데 결론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니버의 '상징'론은 상징에 대한 '변증법적인 해석학'의 지평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그는 정통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명 속에서의 다양한 상징의 개념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궁극적 의미를 드러내는 '신화'를 연역법적인 '합(synthesis)'의 종합명제로 전제하고, 이 '합'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서의 다양한 상징의 개념을 '정(thesis)'과 '반(antithesis)'에 위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버의 전체 상징에 대한 해석은 '영구적인 '상징(permanent symbol)'의 절대적인 측면과 언제든지 상징의 의미가 부패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적함으로써, 상징은 그 자체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상징의 무용론이 아니라, 궁극적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상징은 역사 내 긍정과 부정의 순환고리에 처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즉, 역사 안에서 변화무쌍하면서도 상대적인 상징은 자체의 유한성 때문에 다양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변화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초역사적인 세계관을 향하여 '정(thesis)'과 '반(antithesis)'은 의미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와 같은 니버 신학의 상징론은 신비주의나 관념론의 오류처럼 유한성과 절대성의 구분이 모호하여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원론처럼 아예 양자를 분리하여 버리는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볼 때 이는 니버식의 '상징의 해석학'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는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을 통하여 궁극적 의미의 지평을 파악하려는 시도보다는 이를 초월하는 '교회의 본질'로서의 상징의 세계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

하다고 본다. 사실 성서의 역사를 보더라도 출애굽과 가나안 시대의 성소는 ‘장막’이었으며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로마의 성전’ 또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4:23)”는 그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성경의 진리는 증거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엡 1:22; 5:23; 골 1:18),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소가 없으며 ‘어린양’이 성전이다.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따라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의 역사적 조건에 그 중심이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의 교회 본질론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시대 니버의 상징론은 상징에 대한 역사의 의미를 재정향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니버는 당시 정통주의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교조화로 제한하였고, 자유주의는 시대적 이성과 문화의 요소를 궁극적인 종교적 가치와 등치시킨 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전통의 루터 신학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약화했다고 니버는 이해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니버의 상징론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세상적’이 아닌 ‘역사 내’ 사건으로 이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한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니버의 역사에 대한 상징관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패배주의로 받아들이거나 저 세상적 종말론을 구하는 열광주의, 아니면 개인의 내면으로 숨는 금욕주의적 경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니버가 강조하였듯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미래는 때가 되면 나타날 영원에 대한 예기치 않은 가능성의 상징”이다.⁹⁰⁾ 따라서 역


90) Reinhold Niebuhr,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사의 문제에 대하여 회피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여야 할 도덕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니버의 상징론이 제시하는 예언자적인 윤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따라서 니버의 상징론은 기독교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공공윤리의 특성을 제시하여 준다고 보며 이 또한 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니버는 상징의 의미가 변질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의 상징’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치의 상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니버의 입장은 상징이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통전적으로 연결하는 유기적인 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VII. 결론

코로나19 시대 기독교의 상징은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교회는 세계로 나간다. 세속 사회가 코로나19로 모임을 제한하는 이때 교회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사회 안에서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롬 12:1)”이며, 아울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상징이 종종 ‘개독교’로 변질되어 비난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상징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니버가 분석하였듯이 어쩌면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비판에 대하여 세상이 새롭게 주목하는 ‘상징’을 형성

하는 기독교 문화 창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미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공공신학의 사명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절망이 아니라 기회이며 운명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붙드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Niebuhr, Reinhold. *Leaves from the Notebook of a Tamed Cynic*. Willet, Clark and Colby, 1929.
- _____.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Harper & Brothers, 1935.
- _____.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of Ethics and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36.
- _____.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 _____.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Charles Scribner's Sons, 1940.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1.
-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II: A Christian Interpretation*. Nisbet & Co, Ltd, 1943.
- _____.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London: Nisbet & Co., LTD, 1944.
- _____.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Cultural Unity*. The Hazen Pamphlet, USA, 1945.
- _____. *Discerning the Signs of the Times: Sermons for Today and Tomorrow*.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6.
- _____. *Faith and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_____.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2.
- _____. *The Self and the Dramas of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_____. *Love and Justice: Selections from the Shorter Writings of Reinhold Niebuhr*. ed. by D. B. Robertson, 1957.

■ Abstract ■


**A Study of Reinhold Niebuhr's Thought on
Symbol in the Age of Covid-19:
Symbol and Christian Ethics**

Kyoung Dong Yoo

Christianity faces the 'New Normal' in the age of Covid-19. Above all, traditional religious forms of worship by gathering in the church experienced a transition to full-scale 'untact' form,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pandemic. Christianity, while participating in the worldwide pandemic in the realm of public domain, must also consider the issue of a religious symbol, since the communal gathering for worship, has become limited. The church is not simply a place for Christian gatherings. It possesses a characteristic of a symbolic spiritual community by sharing all religious values and forms of Christianity.

The author will focus on Christianity's symbolical world and examine the symbolism in the theology of Reinhold Niebuhr. Niebuhr, while avoiding the infringement of the authority of the

Kyoung Dong Yoo graduated fro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Th.), Yonsei University(B.A.), Emory University(M.Th.) and Vanderbilt University(Ph.D.). He is now a professor of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bible by standing on the tradition of neo-orthodoxy. defined the realm of the ultimate meaning, which cannot be comprehended by human reason as ‘mythology,’ and understood the ‘symbol’ as a means that provides it. The author is interested in Niebuhr’s interpretation of the ‘symbol.’ He does not use the ‘symbol’ as the limited religious sign in the private domain of religion but expands its concept to organically connect the created world of God. Therefore, Niebuhr expanded and examined the symbol idea to the public domain, thereby taking into account the church’s ethical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domain. The author understands that Niebuhr showed the insight regarding the ‘politicality, religiosity and historicity of symbo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ymbol, and expects that Niebuhr’s contribution will provide theological insight for the reorientation of the church and theology to the essence of faith in the COVID-19 age. 

Key Words

Reinhold Niebuhr, Symbol, The Kingdom of God, Politics, History